



특집 \_ 전 세계 동포사회, '3·1 운동 100주년' 맞아 기념행사 잇따라 열어  
OKF 소식 \_ 시인 윤동주 · 독립운동가 최재형, 초등 교과서에 '재외동포'로 소개



# 3.1운동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독립운동을 이끌어온, 역사 속의 재외동포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이다. 3·1운동을 포함해 독립운동사를 살펴보면, 재외동포의 역할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상황에서 세계 각지로 흩어진 동포들은 각 나라에서도 조국 독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중국에서 대대적인 항일 독립운동을 진행했던 동포들은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국권을 되찾고자 노력하였다. 맹렬하게 독립투쟁을 펼치던 연해주 동포들은 구 소련의 소수민족 억압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이주 당하였다. 또한 일본으로 끌려간 동포들은 징용 등 각종 전쟁범죄로 희생양이 됐지만 이를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세계의 동포들은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고 조국 독립운동에 힘써왔으며,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애국심을 보였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재외동포의 희생과 노력이 더해져 얻어진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재외동포들을 기억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앞으로의 100년을 위하여

앞으로의 100년은 하나 된 한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하는 시기이다. 최근, 한반도는 평화의 바람과 함께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통일은 남과 북이 이뤄내야 하는 사안이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재외동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이자 내일이다.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처럼 내외동포가 하나가 되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창**

본 글은 충남연구원 계간지 ‘열린충남’ 특집호 제86호(2019년 3월호)에 수록된 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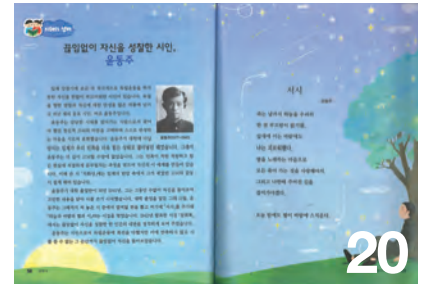




04



06



20

- 02 권두언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04 특집             전 세계 동포사회, '3·1 운동 100주년' 맞아 기념행사 잇따라 열어
- 06 화제             문 대통령 "북미대화 완전타결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 08 기획             "3.1운동은 전세계 한민족 네트워크가 처음 실체를 드러낸 역사적 사건"
- 10 글로벌 코리안    아마존 마을에 '종이접기' 알린 브라질동포 김성민 씨  
KBS '대한민국 100년상' 받은 박기출 월드옥타 명예회장  
60개국에 '성공' 나눠주는 재미동포 팟캐스트 방송인 이채영 씨
- 12 한민족 공감      문 대통령 "독립유공자 마지막 한 분까지 발굴하고 후손 제대로 예우할 것"
- 13 지구촌 통신원    "글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호주 시드니 문예창작교실 호응 속 종료
- 14 동포소식          프랑스 한인 100년사 출간... '교례양 100년의 향해' 외
- 17 동포 캘린더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국내서 사단법인 설립 외
- 18 유공동포          재불(在佛)동포들이 찾아낸 '잊혀진 독립운동가' 홍재하
- 19 주목! 차세대      '美 불법체류 추방유예' 한인 학생, 하버드·스탠퍼드 의대 동시합격
- 20 OKF 소식          시인 윤동주·독립운동가 최재형, 초등 교과서에 '재외동포'로 소개 외
- 22 고향의 맛·멋      바다와 땅 기운이 펄펄 넘치는 맛있는 보양식,  
고창 '풍천장어' 복분자와 함께 먹으면 최상의 궁합
- 24 재단공지          2019년 재외동포 중고생 및 대학생 모국연수 참가자 모집 외
- 26 동포문학          서시 / 윤동주



발행인: 한우성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전 세계 동포사회, ‘3·1 운동 100주년’ 맞아 기념행사 잇따라 열어

도쿄, 항저우, 뉴욕, 헤이그, 런던, 요하네스버그 등지서 “대한독립 만세” 함성

**각**국 재외동포들은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기렸다. 3·1 운동은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가 역량을 결집한 첫 사례이며 동포사회가 한민족 정체성을 형성·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3·1 운동 100주년을 맞는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감회는 각별하다.

## 재일민단, 일본 46곳서 3·1절 기념 행사

재일본대한민국 민단 중앙본부는 3·1절 100주년인 3월 1일 오후 도쿄 미나토구(區)에 있는 한국 중앙회관에서 동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민단은 이날 도쿄를 비롯한 일본 전역 46곳에서 지역별로 3·1절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이수훈 주일대사가 참석한 중앙본부 주최의 도쿄 행사에서는 현대어문으로 작성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이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했다. 참석자들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항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서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깊이 되새기는 동시에 그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민족자존 정신

계승 ▲북한의 핵 폐기 요구 ▲재일동포 권익 보호 ▲한일우호 증진 기여 등 4개 항으로 된 결의문을 채택했다.

## 중 항저우 임시정부 청사서도 “대한독립 만세” 함성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중국 항저우(杭州)에서도 3월 1일 3·1절 100주년을 맞아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다. 주상하이총영사관과 항저우 한국상회(한인회)는 이날 독립유공자 후손, 교민, 정부 대표단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장성 항저우 시 서호(西湖)변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에서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항저우 한국상회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 직후 일본에 쫓기던 김구 선생의 피신을 도운 중국인 지사 주푸청(1873~1948)의 후손에게 우리 국민의 감사 마음을 담은 장학금을 수여했다.

## 뉴욕 맨해튼서 “대한독립만세”… 유관순 열사 조카손녀도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3월 1일 미국 뉴욕 맨해튼 도심에서도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크게 울렸다. 뉴욕한인회 주관으로 맨해튼 유엔본부 앞 다그 할마슈드 광장에서 100년 전 3·1 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열린 것이다. 눈이 온 뒤 영하의 쌀쌀한 날씨에서도 열기는 뜨거웠다. 남녀노소 약 400명에 달하는 참석자들은 이마에 태극기 문양을 새긴 머리띠를 두르고, 손에는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1



2



3



4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여성들은 흰색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고 100년 전 아우내 장터에서의 유관순 열사(1902~1920) 만세운동을 재현했다. 아리랑과 '3·1절 노래' 합창에 이어 기미독립선언문 낭독도 이어졌다. 특히 뉴욕 컨스에 거주하는 유관순 열사의 조카손녀 유혜경(54) 씨가 유관순 열사의 대역을 맡아 만세 삼창에 동참했다.

###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주(駐)네덜란드 한국 대사관은 3월 2일 3·1 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헤이그 시내 '이준 열사 기념관'에서 거행했다. 기념식에는 이윤영 주네덜란드 대사를 비롯해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사는 동포 250여 명이 참석해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이 대사는 "1907년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아 일제의 침략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됐다가 순국한 이준 열사를 기념하는 곳에서 3·1절 100주년 기념식을 갖게 돼 뜻깊다"면서 "이 열사를 비롯한 세 분 특사의 헌신이 3·1운동의 기폭제가 됐다"고 말했다.

### 3·1 운동 100주년 맞아 런던서 남북한 동포 함께 통일선언

영국 수도 런던의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뉴몰든. 3월 1일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뉴몰든의 한 교회에서는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영국협의회 주최로 기념식이 열렸다. 해외 곳곳 한인사회에서 3·1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지만, 런던의 기념식이 더욱 특별했던 것은 남북한 동포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이다. 현재 영국에는 4만여 명의 우리 동포들이 거주하면서 유럽 내 최대 규모의 한인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탈북 후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영국에서 사는 북한 동포 800여 명도 주로 뉴몰든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남북한 동포가 함께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등을 지켜봤다. 이어 남북한 동포 8명이 함께 단상에 올라 '뉴몰든 통일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



5



6



7

1.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두 번째로 활동했던 저장성 항저우의 임시정부 옛 청사 건물, 현재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이 들어서 있다.
2. 네덜란드 헤이그의 이준열사기념관에서 3월 2일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마친 뒤 이윤영 네덜란드 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관 앞에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3. 프랑스 파리의 주불한국대사관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로 카드섹션을 하고 있다.
4. 재일본대한민국 민단 중앙분부는 3·1절 100주년인 3월 1일 오후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한국중앙회관에서 동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이수훈 주일대사가 이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하고 있다.
5. 남미 파라과이 한글학교에서 3·1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6.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한글학교에서 3·1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7. 유관순 열사의 조카손녀인 유혜경 씨가 3월 1일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 앞 다그 할마슈드 광장에서 열린 100년 전 3·1 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 씨는 유관순 열사의 친동생인 유인석 씨의 손녀다.

# 문 대통령 “북미대화 완전타결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3·1절 100주년 기념사… 하노이 담판 결렬에 “우리 역할 더욱 중요해져”



1



2



3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일 하노이 담판 결렬에 대해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며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해질 것”이라며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두 정상 사이에 연락사무소 설치까지 논의가 이뤄진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전망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하노이 담판이 상당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숏한 장애물이 엄존하는 만큼 그때그때 고비를 넘기 위해 중재역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비무장지대 남북 국민이 공동사용… 北 자유여행·이산가족 고향 방문 추진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하늘·땅·바다에서 총성이 사라졌다”며 “이제 곧 비무장지대는 국민의 것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우리는 그곳에서 평화공원을 만들든,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하든, 생태평화 관광을 하든, 순례길을 걷든,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남북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동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북한 여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산가족과 실향민이 단순한 상봉을 넘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 친지를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다”며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년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꿈꾸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다”며 “새로운 100년은 진정한 국민의 국가를 완성하고, 과거 이념에 끌려다니지 않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통합하는 100년”이라고 말했다.



4

### “평화·경제공동체인 ‘신한반도체제’로… 북미타결 토대로 평화체제 구축”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의 한반도라는 도전을 시작했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에 들어섰고, 새로운 100년은 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100년”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라며 “신(新)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라며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라며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 타결과 국제사회 지지를 토대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또 “신한반도체제는 이념·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며 “한반도에서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며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는 남과 북을 넘어 동북아·아세안·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5

1.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 문 대통령이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유관순 열사의 조카 유장부 씨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한 뒤 유 열사의 이화학당 후배인 이화여고 윤수진 양에게 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3. 3·1절 100주년인 3월 1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보신각 타종행사에서 참석자들이 ‘100인 만세운동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4. 3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대형 태극기가 게양되고 있다.
5.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제100주년 3·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친일잔재 청산해야… 외교갈등 만들자는 것 아냐… 평화 위해 對日협력 강화”

문 대통령은 친일잔재 청산을 통한 가치 정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며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이 떳떳할 수 있는 길”이라며 “민족정기 확립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했다. 특히 “이제 와서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 단순한 진실이 정의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게 공정한 나라의 시작”이라고 했다. **창**

# “3.1운동은 전세계 한민족 네트워크가 처음 실체를 드러낸 역사적 사건”

만세운동의 불길, 만주·연해주 이어 태평양 건너 미국 동포사회로 확산



1. 독립기념관에 전시된 민족대표 독립선언도. 민족대표들은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갖고 세계 만방에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했다. 이로써 거족적인 3·1운동이 점화됐다.
2.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종로 인사동 거리에서 재외동포 모국연수 참가자들이 유관순 열사의 모습으로 한복을 입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3. 룡징 재1유치원에 세워진 3·13 만세운동 기념비.(독립기념관 제공)
4. 서재필기념사업재단이 제1차 한인회의 90주년을 맞아 2009년 4월 필라델피아 옛 리틀극장 외벽에 부착한 동판.(독립기념관 제공)

“**오**리 조선 민족은 민족의 독립, 민족의 자유, 민족의 정의, 민족의 인도(人道)를 선언하노라. 우리는 4천 년 역사를 가진 나라요, 2천만 신성한 민족이었노라. 그런데 우리 역사를 시멸하고 우리 민족을 타파하여 기반(羈絆·굴레) 밑에 신음케 하며 농락 중에 고통케 함이 어언 16개 성상(星霜)을 열력(閱歷·여러 가지 일을 겪어 지내움)하였다. (중략) 이제 천명을 이어 순종하고 인심을 합응하여 2천만 중의 한 입으로 일제히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두 손을 굳게 잡고 평등의 큰길로 전진하는 것이다.(하략)”

지금으로부터 꼬박 100년 전인 1919년 3월 13일 지금의 지린(吉林)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인

북간도 룡징(龍井) 서전벌에서는 간도 전역의 한인 3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조선독립축하회가 열렸다. 정오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에 맞춰 대회 부회장인 배형식 목사가 개막을 선언하자 군중들은 품에서 태극기를 꺼내 들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대회장 김영학은 김약연 등 17인이 서명한 포고문을 낭독하고 공약 3장을 선포했다.

이어 유예균, 배경식, 황지영 등이 차례로 연단에 올라 일제의 죄상을 규탄하고 독립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대회가 끝나고 반일시위 행진이 펼쳐졌다. 명동학교와 정동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충렬대(忠烈隊)가 앞장서고 군중이 뒤따르며 인근의 일본영사관으로 행진하자 중국 군경이 총칼로 저지했다. 시위대 가운데 10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했다. 나흘 뒤 수천 명이 모여 3·13 희생자들에 대한 추도회를 열었다.

2월 27일 동북아평화연대 등의 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흥익인간재단 장우순 책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919년 3월





2

13일부터 5월 1일까지 만주 지역 31곳에서 연인원 12만5천520명이 만세운동을 벌였다.

러시아 연해주에서도 만세운동의 불길이 타올랐다. 3월 17일 오후 4시 조선인 두 명이 문창범 대한국민의회 회장 등의 명의로 작성된 독립선언서를 블라디보스토크 일본총영사관에 전달한 데 이어 신한촌의 한인들은 오후 5시 집에 일제히 태극기를 게양했다. 오후 6시부터는 학생들이 자동차에 나눠 타고 태극기를 흔들며 시내를 누볐다. 러시아 관헌들이 시위자 2명을 체포하고 신한촌의 태극기를 내리도록 하자 이튿날 아침 조선인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해 거세게 항의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니콜리스크(현 우수리스크)에서는 한인들이 3월 17일 아침 선언서를 발표하고 시위를 펼쳤다. 그러나 3월 21일 한인들이 라즈돌노예역에 모여 일본 군대를 습격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러시아 민병대가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4월 7일 녹둔도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하고 1천여 명이 만세운동에 나섰다. 4월 9일 한인동포 이갑장 회갑연에서 200여 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 “북간도·연해주·하와이·필라델피아에서도 우리는 하나였다” ‘나라 밖에서도 만세시위가 펼쳐졌음’을 상기시키

3·1운동 소식은 태평양 건너 미주로도 전해졌다. 1919년 3월 10일부터 하와이 지역신문에 만세시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동포들은 한인교회에서 연일 기도 모임을 연 데 이어 4월 12일 국민회 주최로 호놀룰루 근교와 이알라 한인기독교학원에서 독립 경축대회를 개최했다.

미국 본토에서의 3·1운동은 서재필·이승만·정한경이 주도했다. 한인 지도자 150여 명은 4월 14~16일 필라델피아 리틀극장에서 제1차 한인회의(한국의회)를 열어 일제 침략의 실상과 독립의 정당성을 알린 뒤 미국 독립기념관까지 태극기를 들고 시가행진을 펼쳤다. 현재 리틀극장은 원형이 보존된 채 ‘Play & Players Theater’란 이름의 극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재필기념재단은 제1차 한인회의 90주년을 맞아 2009년 4월 극장 외벽에 영어와 한글로 된 기념 동판을 부착했다. 필라델피아한인회는 4월 12~14일 100주년 기념일을 맞아 제1차 한인회의를 재현하고 만세운동 시가행진과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3



4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에서 “북간도 용정과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와이와 필라델피아에서도 우리는 하나였다”며 나라 밖에서도 만세시위가 펼쳐졌음을 상기시켰다. 3·1운동은 미주·만주·연해주·일본 등 국내외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준비해 온 국민과 재외동포들이 하나로 뭉쳐 이뤄낸 쾌거다. 장우순 홍익인간재단 연구위원은 “3·1운동은 국내뿐 아니라 일본, 미국, 상해, 만주, 연해주 등 전 세계에 구축된 모든 한인사회가 참여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의 한민족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세상에 실체를 드러낸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대한인공립협회와 하와이의 한인합성협회는 1909년 2월 1일 국민회란 이름으로 통합해 미주 3·1운동의 기반을 닦았다. 그 성과를 발판으로 국민회는 이듬해 2월 대동보국회를 흡수해 대한인국민회로 개칭했다. 이어 멕시코지방회, 시베리아지방총회, 만주지방총회 등을 구성해 재외 한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항일의식을 고취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 179개국에 740만여 명의 동포가 살고 있고 한인회가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한민족 네트워크가 그물망처럼 깔려 있다. 전 세계 한인을 한데 묶는 민족정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창**



아마존 마을에 '종이접기' 알린 브라질동포 김성민 씨

## “종이접기로 인디언 부족과 교감하며 한국 알렸어요”

브라질 아마존 유역 바나와 부족 마을. 100여 명의 인디언이 사는 이곳에 한국의 '종이접기'를 알린 브라질동포가 있다. 종이문화재단 종이접기 강사인 김성민(62) 씨다. 종이접기를 좀 더 공부하기 위해 2월 12일 조국을 찾은 김 씨는 “종이접기는 말과 글이 통하지 않는 인디언과도 교감할 수 있는 매개라는 사실을 이번엔 처음 아마존을 방문해 알았다”며 “덕분에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한국을 알렸다”고 말했다.

김 씨는 강명관 선교사와 오종익(아르헨티나), 남상현(미국 뉴저지) 씨와 함께 1월 20~29일 바나와 마을과 헤사카 마을을 찾아 인디언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쳤다. 두 마을은 배로 가면 3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이다. 강 선교사는 20여 년 전 바나와 마을에 들어가 말은 있지만, 글이 없는 부족들에게 글자를 만들어 준 인물이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소명'을 통해 잘 알려졌다.

김 씨는 종이접기를 알리기 위해 1만 장의 종이를 공수했고, 특강이 끝난 뒤 모두 기부했다고 한다. 튼튼 꽃과 꽃대, 비행기 접기를 가르쳤고 이후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열어 가장 멀리 날린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다. “종이접기에는 마을 어린이와 어른 등 70여 명이 참여했어요. 거의 다 모였죠. 헤사카 마을에서도 40여 명이 배웠어요. 다들 신기해했죠. 자신들이 접은 꽃을 볼 때는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짧은 시간을 고려해 인디언 청년 몇 명에게 종이접기를 전수했다. 이들이 대신 교육을 맡도록 한 것이다. 김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아르헨티나에 이민해 9년간 살다가 미국 LA로 이주한 뒤 다시 브라질로 들어가 20여 년 살았다. 여성 의류 사업을 하면서 교회가 운영하는 한글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을 맡아 활동했다. 2017년 브라질에서는 처음으로 종이문화재단으로부터 종이접기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 “청년들 해외 일자리 창출 통해 미래 한국 발전에 초석을 놓고 싶다”

박기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명예회장이 3월 5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TV 스튜디오에서 '제20회 KBS 해외동포상'을 수상했다. 인문사회, 과학기술, 사회봉사 등 부문별로 '해외동포상'을 시상해 온 KBS는 20회를 맞는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5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이종 싱가포르에서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을 운영하며 무역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한민족 위상과 대한민국 국익을 향상한 공로로 박 명예회장에게 이 상을 수여했다.

박 명예회장은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에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30년 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일은 한민족 경



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국의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래 100년 한국의 발전에 초석을 놓고 싶다"고 포부를 말했다. 월드옥타 18대, 19대 회장을 지낸 그는 "이 상을 받는데 큰 그릇이 돼준 월드옥타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박 명예회장은 2001년 싱가포르에서 PG오토모티브 홀딩스그룹을 창업해 말레이시아와 러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며 연간 4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아시아 대표 한상(韓商)이다. 역대 연봉의 대기업 직원 자리를 과감히 접고 40대에 독립해 해외에서 성공한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으로도 불린다. 올해 '제20회 KBS 해외동포상'은 박 명예회장을 비롯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현재 중국 광저우상하이음악대학교 교수로 활동하는 두닝우 씨, 미주광복회 회장직을 맡아 30여 년간 활동한 배국희 씨, 멕시코에서 한인후손회를 결성해 모국 뿌리 찾기 활동을 꾸준히 펼치는 박 울리세스 씨, 우즈베키스탄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고려인들의 단합과 한민족 정체성 유지에 큰 역할을 한 김 블라디미르 씨가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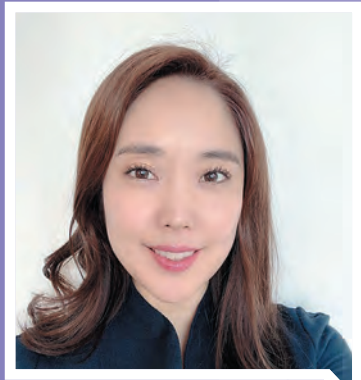


‘제20회 KBS 해외동포상’ 받은 박기출 월드옥타 명예회장

## “흙수저에서 역경 이겨낸 감동 소개해 꿈을 꾸도록 돕는 데 보람”

미국에서 한국 식당으로는 처음 ‘미슐랭 가이드’ 별 등급을 받았고 국내 요리방송에도 출연하는 레스토랑 ‘단지’의 셰프 김훈이, 로봇 공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데니스 흥. 이들의 공통점은 재미동포 이채영(40·미국명 셀리나 리) 씨가 운영하는 팟캐스트인 ‘Live Your Dream with Celina Lee’ (셀리나 리와 함께 당신의 꿈을 펼치세요) 출연자라는 것이다. 성공한 재미 한인 이야기를 담은 책 ‘꿈을 이뤄 드립니다’의 저자로 뉴욕에서 캐리어코칭 전문가로 활동하는 이 씨는 지난 1월 2일 “어느 사회에나 유리천장은 있기 마련이지만 청춘들에게 도전하라고 격려하는 방송”이라며 “소수 인종 또는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사회적 약자라서 꿈꾸는 것조차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팟캐스트에 출연할 한국인 섭외를 위해 서울에 온 그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에서 시작해 역경을 딛고 성공한 이들의 경험을 전하는 방송으로 60여 개국에서 시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MIT에서 경영공학을 전공한 후 메릴린치 증권사에서 근무했고, UC 버클리 로스쿨을 나와 대형로펌의 회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던 이 씨는 남들이 말하는 성공 가도를 달려오다가 궤도를 수정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성공하는 것, 타인의 성공을 돕는 것에서 보람을 찾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 캐리어코칭에 나선 것도 마찬가지. 경력관리나 직업 알선이 아니라 삶의 자세를 바꾸는 일이라서 뛰어들었다. 이 씨는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꿈을 꺼내어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면 꿈을 이룰 가능성이 33%나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기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일”이라며 “방송을 통해 자극을 받아 성취를 일궈낸 사람들이 타인의 꿈을 후원하는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게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60개국에 ‘성공’ 나눠주는 재미동포 팟캐스트 방송인 이채영 씨



# 문 대통령 “독립유공자 마지막 한 분까지 발굴하고 후손 제대로 예우할 것”

##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보존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3월 4일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사연구소 기능을 더욱 확대해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하고, 국내외에서 마지막 한 분의 독립유공자까지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날 청와대에서 ‘100년의 역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분단이나 해외거주 등 이유로 발굴하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선조들의 만세운동은 민족 독립과 함께 자유·인권·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항쟁이었다”며 “항쟁을 이끈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후손을 제대로 예우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이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선포된다”며 “임시정부기념관에는 오늘 참석한 후손들의 자랑스러운 선조 서른네분의 삶이 민주공화국 10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찬에는 독립유공자 34명의 후손 65명이 참석했다. 이들 후손은 미국·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호주·캐나다·브라질·일본 등 8개국에 거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의병·광복군사령부·의열단 등에서 활동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외국인으로서 무기반입과 군자금 조달에 큰 도움을 준 이들 34명의 독립운동가 이름과 공적을 일일이 거론하며 송고한 희생을 기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중국·러시아·미국 등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과 보존·관리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위).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장병훈 독립운동가의 외손녀인 재미동포 심순복 씨와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연해주 최재형 선생 전시관이 3월 안에 개관할 예정”이라며 “현지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가 관리할 수 있게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단장을 마치고 3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충칭의 임시정부 광복군총사령부 건물의 복원 준공도 3월 안에 계획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관을 새롭게 단장하는 데도 국비 7억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

# “글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 호주 시드니 문예창작교실 호응 속 종료

### 한인문학도들, 어두운 골목에서 등불 발견한 기분 등 열광

“글이 살아야 역사가 살고 역사가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박덕규 소설가(단국대 교수)는 호주의 늦깎이 한인 문학도들을 향해 열변을 토했다. 시드니 창작교실 후원회와 호주 한호일보 공동주최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한호일보 사옥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3회 시드니 문예창작교실의 한 장면이다. 이번 창작교실에서는 박덕규 소설가와 이승하 시인(중앙대 교수)이 각각 수필·소설과 시(詩) 강좌를 맡았다. 10강으로 이루어진 강좌는 창작이론을 설명한 후 선별된 기성 작가들의 작품과 수강생들의 습작을 놓고 분석·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5명 안팎의 수강생이 매일 오후 4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지한 태도로 강좌에 참여했다. 시드니 인근뿐 아니라 태즈메이니아 주 호바트에서 온 참석자도 있어 이번 강좌에 대한 호주 동포의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박덕규 소설가는 첫 강의에서 “21세기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고 서로 통행하는 트랜스 내셔널리즘(Transnationalism) 시대”라며 “이제는 한국문학을, 한글을 매개로 하는 재외동포문학, 탈북문학, 번역문학 등을 통합한 세계 한글문학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외동포 문인들도 더는 변방이나 국외자가 아니라 한글문학의 한 주제로서 문학적 성숙을 위해 정진해야 한다며 독려했다.

이승하 시인은 “수강생들의 열정과 의욕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이번에 맺어진 사제관계가 의미 있는 문학적 성취로 이어지려면 시작(詩作)을 계속하는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 날 강의에서 교도소와 소년원에 수감 중인 수인(囚人)들의 시 몇 편을 소개하면서 “신체의 자유를 상실한 이들이 시를 쓸 수 있다면 아무리 바쁜 이민 생활이라도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2월 9일 시드니 푸트니 공원에서 열린 종강 모임에는 문예창작교실에 대한 참석자들의 호평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어두운 골목길을 걷어가는 데 등불을 발견한 기분이다”, “험난한 문



2019년 제3회 시드니 문예창작교실(위). 강의하고 있는 박덕규 소설가.

학의 길에서 밀어주고 끌어주는 분들을 만났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제 글쓰기가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박덕규 소설가는 “재미동포들의 경우 한국 문단이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문학적 성과를 보인다”며 “이번 문예창작교실을 계기로 호주동포 문학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정동철 연합뉴스 시드니 통신원

## 프랑스 한인 100년사 출간... '꼬레앙 100년의 항해'

1919년 프랑스 땅 처음 밟은 35명의 첫 한인 이야기도 소개



'프랑스 한인 100년사' 출판 기념회가 2월 26일 서울 교보타워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100년 전 프랑스 땅을 처음 밟은 한인들과 그 후대의 이야기를 담은 '프랑스 한인 100년사'가 출간됐다. '꼬레앙 100년의 항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프랑스 한인회와 한불협회가 구성한 편찬위원회(위원장 이상무)가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을 받아 펴냈다. 프랑스 한인들은 1919년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창립과 유럽 최초로 결성된 한인회이자 프랑스 한인회의 전신인 '재법한국민회' 탄생 100년을 기념해 500쪽이 넘는 역사를 더듬었다. 이 책은 프랑스 땅을 처음 밟고 살아왔던, 살고있는, 앞으로 살아갈 동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1919년 11월 19일, 프랑스 땅을 처음 밟은 35명의 한인 이야기가 소개된다. 이들은 파리 동쪽 200km 지점에 있는 쉬프라는 작은 마을에서 제1차 세계 대전 희생자들의 시체를 안치하는 묘지 조성 사업과 철도 복구공사를 했다.

또 힘들게 일하며 돈을 모아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를 측면에서 지원했고, 파리위원부의 활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상무 위원장은 "나라 잃은 설움을 이겨가며 조국의 독립과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던 재북한인들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며 "암울했던 시절, 독립에 대한 뜨거운 민족적 열망이 상존했던 파리에서 첫 이민자들은 죽을 때까지 한민족이 지녀야 할 정체성과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았다"고 말했다.

## 프라하공항서 한국인 대면심사 없이 자동입국

전자여권 전용 게이트 공식운영... 非EU 국가로는 최초



프라하공항의 한국인 대상 전자여권 전용게이트. (사진·주체코 한국대사관 제공)

3월부터 체코 프라하공항에서 한국인이 대면심사 없이 전자여권 전용 게이트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하게 됐다. 2월 27일 주체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체코 당국은 3월 1일부터 인천-프라하 구간 직항노선을 통해 체코로 입국하는 한국 국적 승객을 상대로 자동입국심사(E-gate) 제도를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만 15세 이상의 한국인들은 사전등록 없이 입국장 내 전자여권 전용 게이트 3개를 통해 자동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자동입국심사는 여권 스캔과 안면인식, 입국 날인 등 간단한 절차로 이뤄져 있다. 자동입국심사를 이용하면 최소 12초에서 최대 30분 내로 체코 입국이 가능하다. 기존 대면 방식보다 30~60분 정도 입국 시간이 단축된다.

자동입국심사 도입으로 연간 42만 명 정도의 한국 여행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체코를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 수는 41만6천 명에 달해 국가별 여행객 수에서 8위를 기록했다. 2017년에는 41만7천 명, 2016년에는 32만5천 명의 한국인이 체코를 방문했다. 체코 당국은 2017년 10월부터 일부 직항 항공편 승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오다 이번에 공식운영을 결정했다. 체코 당국이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자동입국심사를 도입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주체코 한국대사관은 2014년부터 한국인들의 체코 입국 편의를 위해 체코 당국과 자동입국심사를 적용하기 위해 협의를 해왔다.

## ‘인도 근무 15년’ 포스코 법인장, 비즈니스 지침서 발간

방길호 인도 포스코 총괄법인장의 ‘인도 비즈니스 성공비결’



최근 인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현지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행정 절차, 높은 무역장벽, 이질적인 문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중에 인도에서만 15년간 근무한 방길호 인도 포스코 총괄법인장이 현지 비즈니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인도 비즈니스 성공비결’(피톤치드 출판사)을 발간했다. 책은 방 법인장이 인도에서 겪은 경험과 여러 정보를 포인트별로 정리했다. 1부 인도 시장 진출 어떻게 하나, 2부 인도 법인 어떻게 운영할까, 3부 어떤 사업이 인도에 유망한가 등 세 주제로 나눠 총 51개 세부 항목을 담았다. 특히 3부에서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인도 주재원과 현지 인도인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저자의 의견을 곁들였다. ‘인공지능 강국으로 부상하다’, ‘누가 물류 산업의 강자가 될까’, ‘인도 시장에서의 철근 사업성’ 등의 주제를 다뤘다.

방 법인장은 거시적 안목으로 인도 시장을 조망했지만, 항목별 설명은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했다. 그는 책에서 “인도인과 비즈니스에서 구두로 약속한 것은 구속력이 없다. 반드시 서류로 작성하고 서명한다. 그래서 인도를 서류 천국이라고도 한다. 서명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며 지키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인도 포스코에서 푸네 가공센터 법인장, 델리 가공센터 법인장, 마하라슈트라 법인장을 거쳐 올해부터 총괄법인장으로 일하고 있다.

## 도산 안창호 숨결 잇는 美 리버사이드市, ‘3·1 정신의 날’ 선언

베일리 시장 “안창호 선생이 최초의 한인타운 건설한 곳”



미국 리버사이드시 ‘3·1 정신의 날’ 선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초기 독립운동의 기반을 닦은 파차파 캠프가 자리 잡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시의 윌리엄 R.베일리 시장은 2월 27일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3·1 정신의 날’(Sam-il Spirit Day)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장태한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대학(UC리버사이드) 김영옥재미동포연구소장에 따르면 베일리 시장은 선언서에서 “3·1 대중 봉기는 일제강점기에 한국 민중의 최초 저항이었다”며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 회동해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사실, 3·1 운동의 상징이 된 유관순 열사 등을 소개했다. 베일리 시장은 “2019년 3월 1일을 ‘3·1 정신의 날’로 선언하고, 이에 리버사이드 주민에게 3·1 운동의 의미를 기리는 활동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언서와 별도로 ‘3·1 운동 100주년 기념 서한’을 통해 “리버사이드는 한국과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곳은 안창호 선생이 최초의 한인타운을 건설한 곳이다. 그는 리버사이드에서 오렌지를 따며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웠다”라고 말했다. 베일리 시장은 리버사이드 시내에 있는 도산 동상 주변 행진, 뮤지컬 ‘도산’ 공연과 플래시 몹 등의 행사를 소개했다. 리버사이드 시의회는 2016년 12월 도산이 세운 최초 한인촌 ‘파차파 캠프’를 사적지(시 문화관심지)로 지정했으며, 2017년 3월 헌판식을 했다. 파차파 캠프는 1905년부터 1918년까지 초기 미주 한인사회의 중심지로 독립운동의 메카 역할을 했다.

## “3·1 운동 정신 되짚자”... 한-인도네시아 전문가 공동 세미나

“인도네시아서 벌어진 한국인들의 일제에 대한 저항 활동 조명”



3월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아트마 자야 대학에서 진행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 앞서 현지 대학생들이 한국 독립운동에 쓰인 태극기 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은 3월 4일 자카르타 아트마 자야 대학에서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인니문화연구원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3·1 운동이 세계 각지의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일제에 대한 저항 활동을 조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발표자로 나선 인도네시아 한 인역사 연구가 김문환 칼럼니스트는 1944년 12월 29일 중부 자바 주의 한 산에서 조선인 군속들이 결성한 비밀결사 고려독립청년단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10명의 조선인 군속이 손가락을 베어 혈서를 썼다. 이 중 3명은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중부 자바 암바와라 지역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켰고 일본군에게 포위되자 자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단원들은 연합군 포로들과 함께 싱가포르로 출항하는 일본 수송선을 탈취할 계획을 세웠으나 사전에 계획이 누설되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들은 일본 헌병대에 체포돼 실형이 선고됐지만 같은 해 일제가 패망하면서 풀려날 수 있었다. 로스티뉴 국립 인도네시아대학 한국어학과 교수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일제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매우 먼 거리에 있었고, 성공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그들이 이런 저항에 나선 것은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독립을 원했고, 지역적 차이가 이들의 민족주의 정신을 억누를 장벽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호주, 해외 종교인력 고용 허용범위 넓혀

종교활동 보조 직종에도 해외인력 취업 허용... 종교직도 대상 확대



호주 시드니 명물 오페라하우스가 보이는 허버트리지 밑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

호주가 해외 종교인력의 취업 허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호주 연방 이민부 데이비드 콜먼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종교기관들이 기존의 종교직(Minister of Religion)은 물론 종교지원직(Religious Assistants) 분야로도 해외 종교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교지원직에는 예배, 영적 지도, 신자 돌봄, 교육 등 종교활동을 보조하는 상당수 하위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으로 종교기관은 종교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직종 분야에서 해외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종교직 역시 종교기관당 최고위직 한 명만 해외채용이 가능하던 것을 상위직(Senior)이거만 하면 여럿도 고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콜먼 장관은 “현재 호주의 종교직은 2만3천 개가 넘는데 향후 3년간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종교계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종교인 이민 역제를 위해 종교기관이 해외 종교인을 채용하려면 먼저 이민부와 노동계약을 맺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계약은 체결 조건이 까다롭고 자의적인 성격이 많아 종교기관의 취업 초청을 받더라도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종교계는 이번 조치를 종교인의 호주 취업이민의 문이 열리는 계기로 보고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5월 연방총선을 앞두고 종교계의 표심을 잡으려는 반짝 선심정책으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도 있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국내서 사단법인 설립**

아시아 지역 22개국 한인회를 대표하는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회장 심상만 · 사진)가 국내에서 사단 법인으로 등록하고 활동에 나섰다. 심 회장은 “3월 6일 사단법인 등록 허가증을 서울시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단법인 대표는 제가 맡았고, 법인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자이오피스텔’”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아프리카·중동 등 해외 대륙별 한인회 총연합회 가운데 국내에 사단법인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위해 모국 수학생 모집**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원장 송기동 · 사진)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모국 유학을 돕는 2019년도 국내교육과정 수학생을 모집한다. 대학(원) 수학 준비과정, 모국 이해과정, 방학 특별과정 등 3개 과정에 320명을 선발한다. 과정별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niied.go.kr)를 참조하거나 전화(+82-2-3668-1343 또는 +82-41-850-6031) 또는 이메일 hansaram@kongju.ac.kr)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서 10월 세계한상대회… 지역기업 수출 ‘기대’**

60여 개 국가 재외동포 경제인 1천여 명이 참여하는 제18차 세계한상대회가 10월 22일부터 사흘간 전남 여수에서 열린다. 여수시는 지난해 4월 전남도와 공동으로 한상대회를 유치한 이후 한상과 지역 경제인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2월 27일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1세기 장보고 한상 어워드’ 헌정자 공모**

장보고글로벌재단(이사장 김성훈 · 사진)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1세기 장보고’를 인증하고 예우하는 ‘제4회 장보고 한상 어워드’ 헌정자를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대상(헌정자)과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해양수산부장관상 등이다. 헌정자의 성공스토리는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에 전시된다.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www.changpogo.net)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조선족동포 학생들이 부르는 고향 선율’ 유나이티드 합창단 공연 성료**

조선족동포 학생 합창단인 ‘유나이티드 소녀 방송 합창단’(이하 유나이티드 합창단)이 2월 28일 하얼빈시 조선족 제1중학교에서 새봄맞이 음악회를 열었다고 3월 5일 밝혔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사장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이 2006년에 창립한 유나이티드 합창단은 중국 하얼빈시의 조선족 여중생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김춘산 단장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언어를 알아가는 소중한 기회인 합창 공연을 매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中 전인대에 김수호 연변자치주장 등 조선족동포 12명 참가**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3월 5일 개막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 김수호(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연변조선족자치주장 등 조선족동포 12명이 참가했다고 중국조선어방송이 전했다. 의회격인 전인대에는 이들 조선족동포를 포함한 중국 전역에서 3천 명 가까운 대표가 참석했다. 12명의 조선족동포는 지린(吉林) 성, 라오닝(遼寧) 성, 헤이룽장(黑龍江) 성 등 동북 3성 지역 출신이다.



# 재불(在佛)동포들이 찾아낸 '잊혀진 독립운동가' 홍재하

100년 전 도불해 임시정부 도와... 차남, 브르타뉴 지방 거주 확인

일제에 맞서다 프랑스에 건너온 뒤에 일도 조국의 저항운동을 물심양면으로 돕던 독립운동가 홍재하(洪在廈·1898~1960)의 구체적인 삶의 궤적이 재불동포들의 노력으로 사후 60년 만에 확인됐다. 홍재하는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러시아와 북해를 거쳐 프랑스로 들어와 임시정부 인사들을 돕고 국내에 독립 자금을 댄 인물로, 지금까지 그 공적의 전체 내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역사 속에 묻혀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만주와 러시아를 거쳐 프랑스 파리로 들어온 홍재하의 2남 3녀 중 차남 장자크 홍 푸안(76) 씨가 브르타뉴 지방 생브리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부친이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인사들과 교류한 서신 등 희귀문서들을 누나로부터 2006년 물려받아 보관해오다 최근 한인 부부의 도움으로 이 자료의 정리를 시작했다. 장자크 씨가 보관해온 기록들에 따르면, 홍재하는 1898년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서 태어나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위험에 처하자 1913년 만주를 거쳐 러시아 무르만스크로 건너갔다. 1919년 전후로 영국 에든버러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황기환 서기장의 노력으로 다른 한인 34명과 함께 프랑스로 건너왔다. 유품에는 러시아군으로 1차 대전에 참전했다는 기록과 황기환과



재불 독립운동가 홍재하(오른쪽)가 프랑스 생시르 육군사관학교에 파견 교육을 받으러 온 한국군 장교 또는 생도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파리의 자택 앞에서 모습.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1950년대 중후반에 찍은 사진으로 추정된다.(홍재하 차남 장자크 홍 푸안 씨 제공)

주교받은 서신들이 있다.

이후 프랑스 최초의 한인단체 '재법한 국민회' 결성에 참여, 이 단체 2대 회장을 지냈다. 재불동포 1세대인 홍재하 등은 1차대전 격전지 마른에서 전후복구를 하며 번 돈을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대표 김규식)에 보냈고, 1920년에는 프랑스에서 3·1 운동 1주년 기념식도 열었다. 여기까지는 학계에도 어느 정도 알려진 내

용이지만, 이들과 그 후손이 2차대전 종전 후 어떻게 살았는지는 지금까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러던 것이 재불동포 김성영(렌 경영대 교수), 송은혜(렌2대 강사) 씨 부부가 장자크 씨를 한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되면서 베일에 싸여있던 홍재하의 삶의 궤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장자크 씨에 따르면, 부친 홍재하는 1920년대 파리의 미국인 사업가의 집사를 거쳐 프랑스인 여성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번 돈을 계속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다.

해방 후 처음 설치된 주불 대한민국 공사관 문서의 체류목적을 적는 칸에 그는 "국속을 복수하고, 지구상 인류에 평등하기를 위하여"라고 적었다. '국속'을 '國東'으로 읽는다면, '나라를 일제에 빼앗긴 것에 복수하고 인류 평등에 공헌하고자 프랑스로 건너왔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오매불망 고국행을 그리던 그는 한국이 해방된 뒤에도 귀국하지 못했고, 고국이 다시 전쟁에 휩싸이자 비탄에 빠져 말을 거의 잃었다고 그의 아들은 증언했다. 이후 홍재하는 마음을 다잡고 전쟁 구호물자 조달에 매달렸고, 휴전 뒤엔 귀국의 꿈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1960년 암으로 타계했다. 마지막까지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그의 유해는 현재 파리 근교에 묻혀 있다. [정]

# ‘美 불법체류 추방유예’ 한인 학생, 하버드·스탠퍼드 의대 동시합격

## ‘로즈장학생’으로 英 옥스퍼드대학 수학 예정인 박진규 씨

**□** 미국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다카·DACA) 수혜자로서는 처음으로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화제를 모았던 하버드대 출신 한인 박진규(23·사진) 씨가 최근 미 명문대학인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의과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3월 6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박 씨는 하버드-MIT(매사추세츠공대) 의학·박사 통합과정과 스탠퍼드대 의대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지난해 하버드대(생물학 전공)를 졸업했으며 평소 의료인의 꿈을 꾀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측은 박 씨가 약 2년간의 로즈 장학생으로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수학한 뒤 하버드-MIT 의학·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즈 장학생은 1902년 영국 사업가 세실 로즈의 유언에 따라 시작된 장학프로그램으로 장학생을 뽑을 때 우수한 학업 성적 외에도 인격과 봉사활동, 특정 주제에의 열정적 관심에 많은 무게를 둔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2~3년간 영국 옥스퍼드대학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게 된다. 로즈장학회와 하버드대 측은 공동 변호사팀을 꾸려 박 씨가 영국 유학 생활을 마친 뒤 하버드대로 돌아와 추방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 1월 미 뉴욕타임스(NYT)



7세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박진규씨는 2년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수학한 뒤 하버드-MIT의학·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할 예정이다.

에 기고문을 통해 다카 수혜자로서 혼란스러운 심경과 그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글을 실었다. 당시 로즈 장학생 선발에 대해 “쓰고도 단(bittersweet) 소식이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방침에 대해 “그것은 내가 10월에 옥스퍼드로 떠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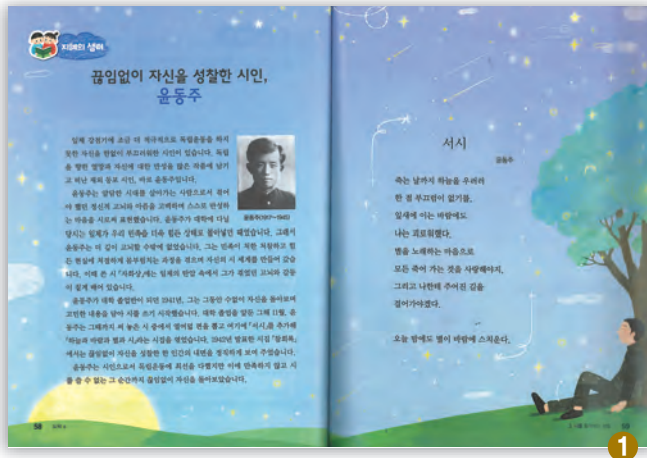
또 “나는 매일 ‘내가 여기(미국 사회)에 속해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 (미국에)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해야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서 옥스퍼드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이 나라(미국)에 ‘우리는 미국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어떻게 촉구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옥스퍼드대학으로 떠나면 자신이 자라온 뉴욕 퀸즈 플러싱 ‘41번가, 유니언 애비뉴’의 북적대는 버룩시장과 ‘노던 블러바드’에 있는 한국식당의 떡볶이 냄새를 생각하게 될 것’ 이라면서 “이런 것들이 나의 뿌리이고, 현재의 내가 되기까지 나를 성장하게 한 광경이자 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7세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으며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 플러싱에 정착했다고 덧붙였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으로 최대 8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다카 수혜자는 ‘드리머’로 불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9월 다카 폐지를 결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주면서 의회에 대체 입법을 요청했으나 협상은 공전하고 있고, 이후 다카 폐지 정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한정**

# 시인 윤동주 · 독립운동가 최재형, 초등 교과서에 '재외동포'로 소개

초 · 중 · 고 교육과정에 '재외동포' 단어가 등장한 것은 처음



1



2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시인 윤동주와 독립운동가 최재형이 '재외동포'로 명시됐다.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사용하는 도덕, 사회 교과서에 각각 윤동주와 최재형이 재외동포로 소개됐다고 3월 19일 밝혔다. 현재 사용되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재외동포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단은 "초·중·고 교과서에 재외동포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 2017년 12월 국무총리주재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초등학교 6학년 도덕교과서(58~59쪽)에는 윤동주를 '독립을 향한 열망과 자신에 대한 반성을 많은 작품에 남기고 떠난 재외 동포 시인'으로 기술했다. 아울러 그의 대표작 '서시'를 게재했다.

사회 교과서(42쪽)는 최재형을 안중근의 의거를 도운 사람 중 하나로 열거하고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도 체포되어 안중근과 같이 재판받게 되자 재외 동포 최재형은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고 표현했다.

한우성 재단 이사장은 "현재 교과서에 수록된 재외동포가 340명이 넘지만, 이 사실이 명기돼 있지 않다"며 "이를 사실대로 교육하기만 해도 우리 국민의 세계화와 지구촌 한민족 통합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동주(1917~1945) 시인은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최근 5년간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관심이 큰 독립운동가를 꼽은 결과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최재형(1860~1920) 선생은 함경북도 경원 출생으로 어려서 가족을 따라 연해주로 이주해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상해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으로 추대될 정도로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쏟았다.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댔으며,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 본부를 둔 '독립단'을 조직했다. **창**

-----  
시인 윤동주와 독립운동가 최재형이 처음으로 초등교과서에 '재외동포'로 기술됐다.  
1.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교과서 수록 면(재외 동포 시인 '윤동주')  
2.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수록 면(재외 동포 '최재형')

## “배움 과정 통해 모국과 거주국 잇는 훌륭한 가교역할 수행해달라”



재외동포재단은 2월 27일 서울 외교센터 더모스트홀에서 제21기 재단 초청 장학생 장학증서 및 졸업생 환송회를 가졌다.

재외동포재단은 2월 27일 서울 외교센터 12층 더모스트홀에서 제21기 재단 초청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및 졸업생 환송회를 가졌다. 제21기 장학생은 총 29개국 80명(학사 35명, 석·박사 45명)이 선발되었으며, 현재 재학 중인 장학생은 56개국 25개교 258명이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여러분의 모국은 20세기 세계사에서 정치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모두 성공한 유일한 나라이며 세계 속에 선진한국을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배움의 과정을 통해 모국과 거주국을 잇는 훌륭한 가교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단은 재외동포 우수 학생을 발굴, 모국 수학 기회를 제공하여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재단 초청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 재단,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전교육 실시

재외동포재단은 3월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간 서울 서초동 신라스테이에서 한상기업 인턴십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생들은 비즈니스 영어, PPT 및 문서작성 방법과 같은 실무 교육뿐 아니라 재난 안전지침,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 등을 교육받았다.



재외동포재단은 제8기 한상기업 인턴십 사전교육을 3월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간 실시했다.

또한, 팀워크 활동에서 해외 인턴십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8기 인턴십 사업을 통해 총 18개국 34개 한상기업에 47명의 국내 청년들이 인턴십 파견을 나가게 될 예정이다. 재단은 한상네트워드를 활용해 국내 청년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상기업에 맞춤형 국내 우수인력을 소개하는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을 하고 있다. 재단은 제9기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을 위해 4월 15일(월)~ 5월 7일(화)까지 인턴채용 한상기업을 모집한다.

## 재외동포 자녀 위한 ‘한글학교 독서교육 시스템’ 시범 운영

재외동포재단은 한글학교에 재학 중인 재외동포 자녀들이 모국의 우수 어린이 도서와 다양하고 재미있는 독서교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글학교 독서교육시스템(www.okfreading.net)’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년간 시범 운영하는 한글학교 독서교육시스템은 국내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도서, 국제 문학상 수상 도서 등 총 280종을 전자책으로 제공하며 퀴즈, 퍼즐 등의 독후활동 콘텐츠와 학생별 독서능력 진단 검사 기능도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 문의는 <http://www.okfreading.net> 사이트 하단의 고객센터, 혹은 이메일 [readingocean0228@naver.com](mailto:readingocean0228@naver.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 바다와 땅 기운이 펄펄 넘치는 맛있는 보양식, 고창 '풍천장어' 복분자와 함께 먹으면 최상의 궁합

특유의 불포화지방산, 모세혈관 튼튼하게 하고 몸의 생기 돋워주는 작용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전북 고창군의 주진천. 인천강이라고 하는 이 하천은 바닷바람과 물바람이 함께 분다고 해 풍천(風川)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 지역의 대표 음식이 풍천장어다. 바다와 땅의 기운이 펄펄 넘치는 풍천서 잡히는 뱀장어는 맛과 영양이 일품이어서 사계절 내내 찾는 이들이 많다.

장어란 이름 그대로 몸이 뱀처럼 긴 물고기를 말한다. 크게 봉장어(아나고), 먹장어(곰장어), 갯장어(하모), 뱀장어로 나뉘는데 고창의 풍천장어는 바로 이 뱀장어를 이른다. 진갈색의 몸과 은백색의 배를 가지고 있는 뱀장어는 가늘고 긴 원통형인데 성어가 되면 몸길이가 보통 60cm가량 된다. 자연산 뱀장어는 바다와 하천을 오가며 일생을 보내는 회유성 어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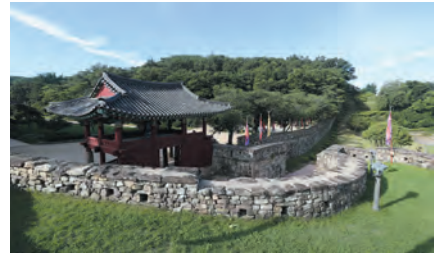
현재 판매되는 풍천장어는 서식지를 찾아 서해로 들어온 실뱀장어를 주진천 인근에서 잡아 양식한 것이 대부분이다. 장어 양식장인 양만장에 잡혀 온 장어들은 1년 정도 먹이를 먹고 자란 뒤 식탁에 올려지게 된다. 국내 최대 생산지인 고창에서는 연간 6천여의 뱀장어가 양식되는데 이는 전국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 구수한 맛과 향의 장어구이와 장어탕

장어 음식은 크게 구이와 탕으로 나뉜다. 구이는 잘 가공된 장어를 숯불에 구워 먹는 요리이고, 탕은 장어를 무 등 각종 식재료와 함께 푹 끓여 만든다. 장어구이는 크게 소금구이와 양념

## 고창 여행 정보

### 고창읍성



고창읍성은 조선 단종 원년(1453)에 외침을 막기 위하여 전라도민들이 유비무환의 슬기로 총화 축성한 자연석 성곽이다. 일명 모양성(牟陽城)이라고도 하는 이 성은 나주진관의 입암산성과 연계되어 호남 내륙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로 만들어졌다. 1965년 4월 1일 사적 제145호로 지정된 이 성의 둘레는 1,684m, 높이 4~6m 면적은 165,858m<sup>2</sup>로 동·서 북문과 3개소의 옹성 6개소의 치성(雉城)을 비롯하여 성 밖의 해자(壕字) 등 전략적 요충시설이 두루 갖추어져 있다. 축성 당시에는 동헌과 객사 등 22동의 관아건물이 있었으나 병화로 소진된 것을 1976년부터 성곽과 건물 14동을 복원·정비했다. 또한 돌머리에 이고 성을 밟으면 병이 없이 오래 살고 저승길엔 극락문에 당도한다는 전설 때문에 매년 답성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

### 당일 코스

고창읍성 → 신재효 고택 → 판소리박물관 → 고인돌 → 선운산

### 1박 2일 코스

고창읍성 → 신재효 고택, 판소리박물관 → 고인돌 → 도산고인돌 → 운곡리 고인돌 → 선운산 → 학원관광농장 → 고창동화농민혁명기포지 → 상금리 고인돌 → 문수사

### 관광안내

고창읍성관광안내소 (063) 560-8055

고인돌관광안내소 (063) 560-8676

### 식당정보

풍천장어웰빙식당 (063) 563-8843



2



3



4

구이로 나뉜다. 먼저 수조에서 갓 잡아 올린 장어의 머리와 뼈, 내장을 칼로 발라낸 뒤 깨끗이 씻어 핏물을 제거한다.

소금구이는 핏물이 제거돼 색깔이 하얗게 된 장어에 소금을 뿌려 숯불 석쇠에 얹어놓고 굽는다. 이렇게 초벌과 재벌로 거꾸 구워주면 기름기가 빠지면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장어구이가 고소한 향기와 함께 노르스름하게 탄생한다. 장어 본래의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소금구이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양념구이는 고추장, 생강, 마늘, 참기름 등 각종 재료를 넣어 만든 양념장을 장어에 바른 다음 석쇠에서 굽는다. 물론 양념장 재료와 만드는 방법은 식당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세 번 정도 양념장을 발라 구워주면 고소하고 담백한 구이요리가 맛깔스레 탄생한다. 오래 구울 경우 소금구이 때보다 고기가 쉽게 탄다는 점도 염두에 뒀다.

장어탕 만들기는 내장과 핏물이 제거된 장어를 육수에 넣어 5~6시간 정도 푹 고아준다. 여기에 무청시래기, 다진 생강, 고춧가루, 된장, 들깨가루 등의 기본재료를 넣고 다시 1시간가량 더 끓인다. 뿌옇게 고아진 국물에 부추채를 얹으면 장어탕 완성이다. 이 장어탕을 밥, 김치, 어묵, 콩나물, 시금치무침 등의 반찬과 함께 먹으면 그 식감을 한껏 즐길 수 있다. 보양식인 풍천장어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해 피부 미용과 체력 보강 등에 좋다고 한다. 이와 함께 노화방지와 성인병에 좋은 비타민A, 마그네슘, 철, 칼륨 등이 풍부하다. 뱀장어 특유의 불포화지방산은 신체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몸의 생기를 왕성하게 돋워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풍천장어를 고창 지역의 또 다른 특산물인 복분자주와 함께 먹으면 만족감이 한결 높아진다. 그만큼 궁합이 잘 맞아서다. **참**

1. 맛깔스레 구워지고 있는 장어구이.
2. 상추, 깻잎, 생강, 쌈장, 간장소스 등 각종 야채와 반찬, 양념이 다채롭게 놓인 장어구이 한 상.
3. 먹음직스러운 장어구이 한 입.
4. 장어탕.

## 2019년 재외동포 중고생 및 대학생 모국연수 참가자 모집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종로 인사동 거리에서 재외동포 모국연수 참가자들이 과거의 대형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재외동포재단은 교육과 탐방, 체험을 통한 모국 이해 증진과 한민족 정체성 함양,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위해 재외동포 중고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국연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 세계 재외동포 중고생, 대학생 가운데 5년 이상 합법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자이며 서울과 지방 도시에서 진행되는 연수 기간은 중고생은 1차 2019년 7월 17일~7월 23일, 2차 7월 31일~8월 6일 이고 대학생은 7월 9일~7월 16일입니다.

선발 인원은 중고생 680명(1차 370명, 2차 310명), 대학생 350명. 신청방법은 [www.korean.net](http://www.korean.net)에 접속, 회원가입 후 개별 신청.

참가자 전원에는 항공료 왕복 기준(일반석) 50%를 지원하되,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과 입양인, 입양인 자녀는 항공료 100%를 지원합니다. 행사 기간 식사 및 숙소, 의료보험(여행자보험) 가입을 제공합니다. 선발 여부 확인 및 문의는 4월 26일 이후 [www.korean.net](http://www.korean.net)을 통해 개별 확인하거나 관할공관,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에 연락하면 됩니다.

## 2019년도 재외동포재단 중국 및 러시아·CIS지역 현지장학생 선발

재외동포재단은 중국 및 러시아·CIS의 우수 재외동포 대학(원)생들의 안정적 수학을 지원하고 모국과의 유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현지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 모집일정

접수기간: 3.6~4.12(재외공관 별 마감일자 변동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2019.5월 중 예정

### • 선발대상

중국: 중국정부 지정 중점대학 등 중국 내 우수대학에 재학 중인 조선족 대학생 및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러시아·CIS: 각 국가별 주요도시 소재, 주요 대학(종합대학 등)에 재학 중인 고려인 대학생 및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 • 선발인원: 140명(중국 70명, 러시아·CIS 70명)

### • 지원내역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USD 1,200/1명(학기당 USD 600, 연 2회 지급)

상기 국가를 제외한 여타 CIS지역:

USD 1,000/1명(학기당 USD 500, 연 2회 지급)

### • 절차

1차(재외공관): 공관별 신청서류 취합, 우선순위에 따라 재단에 추천 및 송부

2차(재단): 공관 추천자를 대상으로 재단 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 관할 공관별 동포 수(조선족, 고려인)를 감안하여 인원 책정

• 신청방법: 코리아넷([www.korean.net](http://www.korean.net))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출력 후,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 제출

• 문의: +82-64-786-0276, [sean6714@okf.or.kr](mailto:sean6714@okf.or.kr)

※ 모든 세부사항은 코리아넷([www.korean.net](http://www.korean.net)) 공지사항에서 확인 필요





## 제22기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OKFellowship) 모집

재외동포재단은 우수한 동포 인재를 발굴, 모국 대학·대학원 수학을 지원함으로써 동포사회와 모국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초청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총 100명(학사 45명, 석·박사 55명 내외)

● **모집일정**

접수기간: 3.13~4.12(재외공관 별 마감일자 변동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2019.6월 중순 예정

● **지원자격**

국적: 재외동포로서 거주국 국적, 영주권, 장기체류자격 보유자

연령: 학사 만25세 미만, 석·박사 만40세 미만

학력: 초등학교부터 지원 과정 직전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이수예정)한 자

※ 2019학년도 9월 학기 또는 2020학년도 3월 학기 국내대학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 석·박사과정 입학예정자

● **신청방법:** 코리아넷(www.korean.net)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출력 후,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 제출

● **문의:** +82-64-786-0277, scholarship@okf.or.kr

※ 모든 세부사항은 코리아넷(www.korean.net) 공지사항에서 확인 필요

## 재외동포재단 제주 본사 자료실 운영 안내

재외동포재단 자료실에는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에 도움이 될 각종 정보 자료가 소장·비치되어 있습니다.

코리아넷 회원이면 누구나 자료실 소장자료의 열람·대출(외부 이용자는 제한적 대출)이 가능합니다.

도서 대출은 3권까지 14일간 가능하며 1회에 한해 7일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 이용 시간은 외부 이용자의 경우 09:00~11:00, 14:00~17:00(휴관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연구 및 정책 참고 자료 활용 목적에 한해도서의 1/3 이하 안에서 부분 복사 및 원문복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82-64-786-0245, 팩스 82-64-786-0249

이메일: library@okf.or.kr

### ● 까마귀의 죽음 \_ 김석범



1957년에 일본에서 발표된 책으로 '제주4·3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작가 '김석범'의 소설로 일본에서 출간된 지 30년이 지난 1988년에 돼서야 국내에 처음 출판이 됐습니다. 제주 4·3의 역사적 상황을 문학적인 장르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제주 땅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역사를 잊지 말고 결코 반복되지 않도록 이 소설을 통해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3·1운동 현장과 혁명의 기억과 공간 \_ 박환

책으로만 접했던 3·1운동의 모습은 우리에게 먼 역사라고만 인식되어 제대로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3·1운동과 관련된 설명도 텍스트로 설명되어 3·1운동을 겪었던 이들의 눈빛과 그 순간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저자가 수집한 자료와 사진을 중심으로 역사적 상황의 생생함을 보여줍니다.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절동안 암울했던 시대 속에서 결의에 찬 이들의 눈빛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넘어선 생생한 사진속에서 100년 전 3월 1일, 그날의 함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 사금파리 한 조각 \_ 린다 수 박



작가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탐구하며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썼습니다. 이 책은 12세기 한국을 배경으로 고려청자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던 모습과 주인공의 성장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02년 전미국 도서관 협회 뉴베리상 아동문학분야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으로 작품성 또한 인정받았습니다. 재미작가의 눈으로 섬세하게 그려진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이번 기회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동포시인 · 독립운동가 윤동주(尹東柱, 1917~1945)

북간도 용정 출생. 20세에 조선으로 유학, 연희전문학교 졸업. 24세에 일본으로 가 유학 중 독립운동 죄목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르다 27세에 서거했다. 건국훈장 독립장(1990).



# 재외동포의 모든 것! 코리아넷으로



통합 [통]

## 합니다

740만 재외동포 전문 포털 코리아넷은 재외동포 관련 뉴스, 한국 관련 문화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민원 안내·접수, 재단 각종 사업 안내·접수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코리아

재외동포의  
각종 정보 소식 전달

### 재외동포 지원

비영리단체 홈페이지 지원  
재외동포 지원사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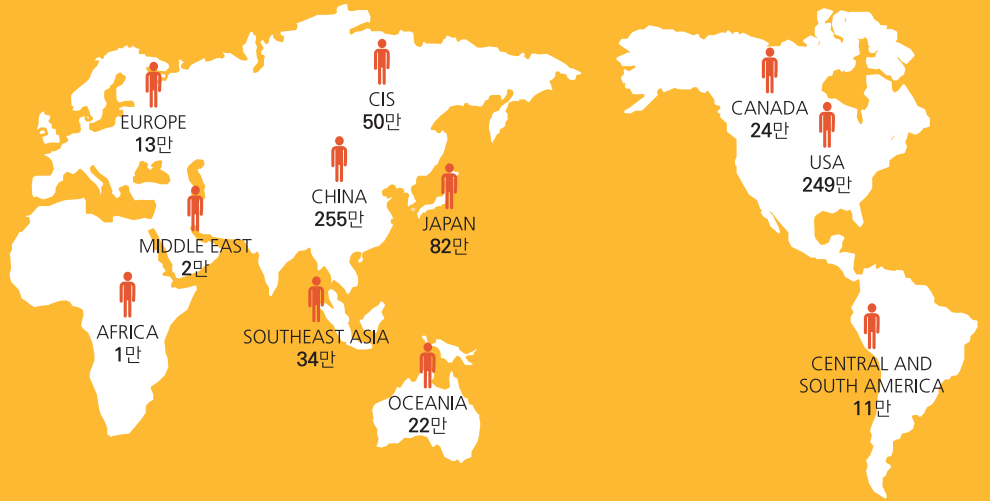
### 소통과 공감

이벤트 참여 및  
커뮤니티 정보 제공

### 재외동포 신문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민원 신청/조회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4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4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